

## 미국의 유대인파워

박재선 (명지대 객원교수, 전 외교부대사)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한 650만 명의 미국유대인이 미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 미국유대인 선조는 유럽에서 종교적·민족적 이유로 박해를 받다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계와 독일계 아시케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미국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겪은 두 가지 스트레스(민족주의, 종교적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 또한 유럽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미국발전과정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3)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유대인들은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수진적 의지로 성공에 매진해왔다.

미국유대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발전에 보완적인 기여를 했다. 유대인들은 특히 과학기술, 학문, 금융, 언론, 정보산업, 문화, 예술 등 그들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향력을 배양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미국유대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1967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미국 내 자생적인 이스라엘 로비단체는 미국정치의 실세권력체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대성공을 이룬 유대인들도 유대인구 감소와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되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목 차

1. 유대인의 미국이민
  - 가. 브라질계 ‘마라노’ 23명의 정착
  - 나. 독일계 유대인 미국이민
  - 다. 동유럽계 유대인 미국이민
  - 라. 지성인 유대인의 미국피란(1933~44)
2. 미국 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공헌
  - 가. 핵폭탄 개발
  - 나. 금융과 유통망
  - 다. 학술
  - 라. 문화·예술
  - 마. 소프트웨어 산업
3. 미국의 핵심유대권력
  - 가. 정치권력
  - 나. 유대(이스라엘)로비
  - 다. 유대인 네오콘 (Neo-Conservative: 신보수주의) 권력
  - 라. 언론 권력
  - 마. 기부·자선권력
4. 미국유대사회의 장래
  - 가. ‘희생자’에 묶여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
  - 나. 유대인인구의 감소
5. 결론
6. 제언

## 1. 유대인의 미국이민

### 가. 브라질계 ‘마라노’ 23명의 정착

- 1694년 9월, 브라질 레시페에서 사탕수수농장을 경작하던 23명의 마라노(Marano;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가 뉴 암스테르담(뉴욕)에 도착했으며 이는 최초의 유대인들의 집단 미국이민임.
  - 1585년 세파라디(지중해·중동 섬족계)유대인 조아킴 곤스(Joachim Gaunse)가 버지니아주 로아노케(Roanoke)에 잠시 들른 기록이 있음. 곤스는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유대인임.
  - 1649년 5월 세파라디계 유대인 솔로몬 프랑코(Solomon Franco)가 지금의 보스턴에 수일 머물다 떠남.
  - 1694년 7월 8일 뉴 암스테르담에 단신 도착한 네덜란드 아시 케나지(유럽계 유대인)유대인 제이콥 바르심슨(Jacob Barsimson)은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유대인으로 기록됨.

### 나. 독일계 유대인 미국이민

- 1840~80년간 독일유대인 약 30만 명이 미국에 정착함. 이들 대부분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농촌지역 출신임. 미국이민 후 이들은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뉴잉글랜드 6개주, 미네소타, 미시간주에 정착함.
- 이들 독일계 유대인은 미국에서 금융망을 조직하고 상업과 유통업을 일으킴.
  - 독일계 유대금융인: 리먼(Lehman), 골드만(Goldman), 삭스(Sachs), 시프(Schiff), 오펜하이머(Oppenheimer), 셸리그만(Seligman), 구겐하임(Guggenhei), 발부르크(Warburg), 쿤(Kuhn), 로브(Loeb) 등.
  - 독일계 유대인 설립 유통망: Macy’s(백화점; Nathan Straus설립), Bloomingdale(백화점; Lyman Bloomingdale 설립), Sears(우편 주문백화점; Julius Rosenwald 설립), Nieman Marcus(백화점; Carrie Nieman 과 Herbert Marcus 공동설립) 등.

### 다. 동유럽계 유대인 미국이민

- 19세기 말부터 1차 대전이 끝난 1920년대 초까지 약 250만 명의 동유럽유대인이 미국에 이민함. 이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루

마니아 등지에서 있었던 유대인 박해(일명: 포그롬)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것임.

- 동유럽 출신 유대인은 대체로 무식하고 가난했음.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도착 후 과격한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폭력 조직 등을 결성해 독일계 유대인의 성공으로 정착된 유대인의 온건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됨.
- 1세대 동유럽유대인은 주로 의류상, 자영업, 밀주업, 고리대금업 등 하급 직종에 종사했지만 자식들을 모두 영재교육을 시켜 단 한 세대 만에 전문 직종(교수,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으로 2세의 직업 전환이 이루어짐.
- 동유럽유대인과 그 후손은 오늘날 미국유대인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음.

**라. 지성인 유대인의 미국피란(1933~44)**

- 1~2차 세계대전 중간 독일의 나치와 서유럽 각국의 반 유대성향 극우세력의 출현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서유럽 유대지성인 15만 명이 미국에 피란옴.
- 이들의 주요직종은 변호사(900명), 의사(3,000명), 음악가(2,000명), 미술가(500명), 작가·문인(2,500명), 과학자·교수(3,200명)였음. 이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14명도 포함됨.
-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으로부터 미국에 온 이들 지성층 유대인은 이후 미국의 과학, 기술, 학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주도함.

*1840~80년간 독일계 유대인은 미국에서 금융망을 조직하고 상업과 유통업을 일으켰고, 동유럽 유대인과 그 후손은 오늘날 미국유대인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음*

**2. 미국 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공헌**

**가. 핵폭탄 개발**

- 1939년 두 명의 유대인 물리학자 중 독일 태생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헝가리 태생의 레오 실라르트(Leo Szilard)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핵폭탄 개발필요성을 강조함.

**루즈벨트 대통령의  
1942년 6월 코드명  
'맨해튼 프로젝트'  
(공식명칭: MED  
Manhattan  
Engineer  
District)'에는  
노벨상 수상자 포함  
유럽 출신 유대인  
과학자 다수가 참여함**

이들은 미국이 나치독일보다 먼저 핵폭탄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이 건의에 따라 루즈벨트는 1942년 6월 코드명 ‘맨해튼 프로젝트(공식명칭: MED Manhattan Engineer District)’를 발족시킴. 이 계획의 핵심인 핵무기개발연구는 독일계 유대인 물리·화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Julius Robert Oppenheimer)가 담당함.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주 로스앨라모스 소재 과학·기술연구소장으로 임명됨.
- 오펜하이머는 3,000여 명의 과학자를 지휘해 1945년 6월 핵폭탄을 완성함. 1945. 7.16 첫 실험(Trinity Test)의 성공으로 인류는 핵 시대에 진입함. 이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됨.
- 이 개발계획에는 노벨상 수상자 포함 유럽 출신 유대인 과학자 다수가 참여함.
  - 에드워드 텔러(Edward Teller, 헝가리), 오이겐 비그너(Eugen Wigner, 헝가리, 노벨상 수상자), 펠릭스 블록(Felix Bloch, 스위스, 노벨상 수상자), 에밀리오 세그레(Emilio Segrè, 이탈리아, 노벨상 수상자), 스타니스와프 울람(Stanislaw Ulam, 폴란드, 수학자), 리즈 마이트너(Lise Meitner,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 러시아-미국, 노벨상 수상자).
  - 텔러와 비그너는 후일 수소폭탄개발을 주도함.

## 나. 금융과 유통망

### 1) 금융

- 중세기 유럽 기독교사회는 돈을 만지는 일, 즉 오늘날 금융에 해당하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켰음.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하층계급에 속했지만 이재에 밝은 유대인들이 금융체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었음.
- 19세기에 접어들자 유럽은 산업화시대에 진입함. 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정은 결국 유대인의 몫으로 돌아감.
- 프랑크푸르트 태생 독일유대인 로스차일드(Mayer Amschel Rothschild) 가문은 19세기 후반 유럽 각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

리아)에 금융망을 구축함.

- 이들은 19세기 중엽 미국에 이민한 독일계 유대인 대리인 수명을 통해 유럽유대금융의 미국 진출을 적극 모색함. 이 중 파울 바르부르크(Paul Warburg)는 1913년 발족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창설의 막후인물이었음.
  - 미국중앙은행인 FRB(미국과 유럽에서는 FED로 부름)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의 연합체임. FRB 가맹은행은 비공개이나 대체로 록펠러, 모건 등의 미국 금융기관과 함께 로스차일드 계열 유럽 민간은행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FRB의 역대 의장과 이사진 중 절반 이상이 유대인임. 초대 의장 찰스 해믈린(Charles Hamlin)을 비롯해 전임 앨런 그린스핀(Allen Greenspan) 그리고 현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 모두 유대인임. 산하 12개 연방은행의 행장도 대부분 유대인임.
  -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연합체 FRB가 미국화폐인 동시에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그래서 그는 1963년 대통령 행정령을 발동해 재무부 산하 국가 중앙은행 창설과 은본위제화폐 발행을 추진했으나 1963년 11월 암살로 이 계획이 무산됨.

## 2) 유통망

- 독일계 유대인 네이션 슈트라우스(Nathan Straus)는 1850년 뉴욕에 미국 최초의 대형백화점 메이시스(Macy's)를 설립함.
- 미국 대도시에 유대인 설립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이 늘어남.
  - 샌프란시스코: I Magnin(1870)
  - 보스턴: Filene's(1909)
  - 밀워키: Gimbels(1887)
  - 뉴욕: Bloomingdale(1861)
  - 피츠버그: Emporium(1868)
  - 시카고: Sears(1886)
  - 애틀랜타: Neiman Marcus(1907)
  - 뉴어크(뉴저지 주): Bamberger's(1983)
  - 매리에타(조지아 주): The Home Depot(1978)
  - 커크랜드(워싱턴 주): Costco(1983)

*프랑크푸르트 태생  
독일유대인 로스차일드  
(Mayer Amschel  
Rothschild) 가문은  
19세기 후반 유럽각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금융망을 구축하고,  
19세기 중엽 미국에  
이민한 독일계 유대인  
대리인 수명을 통해  
유럽유대금융의 미국  
진출을 적극 모색함*

*유대인이 노벨상을  
독점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의  
창의력 교육에 있고,  
1, 2차 대전 중 미국에  
피난 온 유럽 유대  
지식인들은 당시까지  
유럽에 비해 수준이  
낮았던 미국의 학술을  
분야별로 체계화시킴*

## 다. 학술

### 1) 노벨상 수상자

- 19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국적 노벨상 수상자는 333명임. 이 중 114명이 유대인임. 1907년 앨버트 마이켈슨(Albert Michaelson, 폴란드 태생)은 빛의 속도(光速)를 측정해 미국유대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음.
- 유대인이 노벨상을 독점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의 창의력 교육에 있음. 특히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는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기초로 창의력을 배양시키는 교육 자료임. 또한 노벨상 선정기준이 응용력보다는 창의력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유대인 수상자비율이 높은 것임.
- 미국유대인의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 숫자
  - 화학 13명
  - 의학 39명
  - 문학 3명
  - 물리학 33명
  - 세계평화 2명
  - 경제학(노벨의 유지와는 별도로 1969년부터 스웨덴 중앙은행 주도로 시상) 24명

### 2) 학문

- 미국은 건국 후 남북전쟁과 서부개척 그리고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근대국가의 골격을 만드는 데 치중하였음. 대신 학문과 문화·예술 등의 소프트웨어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음. 1, 2차 대전 중 미국에 피난 온 유럽 유대지식인들은 당시까지 유럽에 비해 수준이 낮았던 미국의 학술을 분야별로 체계화시킴.
  - 법 학: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미국 최초의 유대인 연방대법관임.
  - 사회학: 데이비드 두빈스키(David Dubinsky).
  - 교육학: 사이러스 애들러(Cyrus Adler).
  - 정치학: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 역사학: 조지 케넌(George Kenan).

- 경제학: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헨리 모겐소 주니어(Henry Morgenthau Jr.).
- 수 학: 스타니스와프 울람(Stanislaw Ulam), 알프레드 타르스키(Alfred Tarsky), 새뮤얼 아일랜버그(Samuel Eilenberg).
- 화 학: 피터 디바이(Peter Debye), 제임스 프랭크(James Frank).
- 물리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펠릭스 블록(Felix Bloch), 오토 스텐(Otto Stern).

**라. 문화 · 예술**

- 문화 · 예술 분야에서 미국유대인이 이룩한 성취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며 많은 대가를 배출함.
  - 문학: 데이비드 벨라스코(David Belasco, 극작가/‘마담 버터플라이’), 시드니 킹슬리(Sydney Kingsley, 극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 극작가, ‘세일즈맨의 죽음’), 엘머 라이스(Elmer Rice, 극작가),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 소설가), 리온 유리스(Leon Uris, 소설가), 필립 로스(Philip Roth, 소설가), 조셉 브로드스키(Joseph Brodsky, 시인), 맥신 쿠닌(Maxine Kunin, 시인), 조지 카우프만(George Kaufman, 뮤지컬 대본 작가), 로렌츠 하트(Lorenz Hart, 뮤지컬 대본 작가), 오스카 해머슈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뮤지컬 대본 작가).
  - 미술: 막스 웨버(Max Weber, 회화작가), 바넷 뉴먼(Barnett Newman, 회화작가), 벤 샨(Ben Shan, 회화작가), 자크 립슈츠(Jacques Lipchitz, 회화작가), 조 데이빗슨(Jo Davidson, 조각가), 나움 가보(Naum Gabo, 조각가), 알프레드 스티글릿츠(Alfred Stiglitz, 사진작가), 도리스 울만(Doris Ulman, 사진작가), 맨 레이(Man Ray, 사진작가).
  - 음악: 조지 거쉰(George Gershwin, 작곡가/아메리칸 클래식 창시자),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작곡가, 지휘자), 아론 코플랜드(Aaron Copland, 작곡가), 어빙 벌린(Irving Berlin, 대중음악 작곡가), 디미트리 티옴킨(Dimitri Tiomkin, 영화음악 작곡가), 마빈 햄리시(Marvin Hamlisch, 영화음악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뮤지컬 작곡가), 프릿츠 라이너(Fritz Reiner, 지휘자), 안탈 도라티(Antal Dorati, 지휘자), 유진 오르만디(Eugene Ormandy, 지휘자), 아서 피들러(Arthur Fiedler,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James Levine, 지휘자), 마이클 틸슨 토머스(Michael Tilson-Thomas, 지휘자), 리처드 터커(Richard Tucke, 성악가), 레지나 레스닉(Regina Resnik, 성악가), 아서 루빈슈타인(Arthur Rubinstein, 피아니스트), 루돌프 세르킨

*문화 · 예술 분야에서 미국유대인이 이룩한 성취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며 많은 대가를 배출했고, 영화는 미국 유대인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분야임*

**소수인 미국유대인은  
정계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미국정치권력의  
판도를 잘 관찰하고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음**

(Rudolf Serkin, 피아니스트), 야샤 하이페츠(Jascha Heifetz,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Isaac Stern, 바이올리니스트) 등.

- 영화는 미국유대인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분야임. 초기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영화사(Universal, Paramount, Fox, MGM, Warner Brothers, Columbia, Walt Disney) 중 디즈니를 제외하고 모두 유대인이 설립함. 최근 메이저 반열에 합류한 Miramax와 Dreamworks도 유대인이 설립한 영화사임.
-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감독, 캐스팅 담당자, 영화음악 작곡가의 60%가 유대인임.
  -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Jerry Bruckheimer, 캐리비언의 해적, 진주만, TV 수사극 CSI 시리즈 등 제작).
  - 감독: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벤허),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 조스, 쉐들러 리스트, 인디애나 존스),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JFK), 브라이언 싱어(Brian Singer, The Usual Suspects) 등.
  - 배우: 커크 더글러스(Kirk Douglas), 폴 뉴먼(Paul Newman), 더스틴 호프만(Dustin Hofman), 다니엘 데이루이스(Daniel Day-Lewis),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 데브라 윙거(Debra Winger), 위노나 라이더(Winona Ryder), 스칼렛 요한슨(Scarlet Johanson) 등.

#### 마. 소프트웨어 산업

- 미국유대인은 대체로 두뇌산업에 많이 종사함. 20세기 후반부터는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유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음.
- 유대인이 설립한 IT 기업은: IBM, Dell, Oracle, Intel, Unysis, Google, Facebook 등임.

### 3. 미국의 핵심유대권력

#### 가. 정치권력

- 소수인 미국유대인은 정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미국정치권력의 판도를 잘 관찰하고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음.

- 그럼에도 의회와 행정부에 직접 참여하는 인물도 적지 않음. 유대인은 평균적으로 하원의원 30명, 상원의원 10명(현재 13명)을 고정 배출하고 있음. 유대인이 밀집한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주 출신이 다수임. 또한 지난 클린턴 대통령 임기 8년 중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유대인사[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등]가 각료 또는 각료급 국가공직에 진출함.
-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3명[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루스 베이더 진스버그(Ruth Bader Ginsburg),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이 유대인임.

#### 나. 유대(이스라엘)로비

- 미국유대인 대부분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복지나 입장대변을 위한 로비는 없음. 다만 자생적인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단체가 있으며 이 로비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에 미국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을 유도하고 관철시킴.
- 대표적 이스라엘 로비기구는 미·이스라엘 공무위원회(AIPAC: 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임.
  - 1954년 기자 출신 이사이아 케넨(Isaiah Kennen)이 설립함. 설립 초기에는 미국 유대사회와 의회 인사 간 친목기구로 운용됨. 그러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일명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에서 침략자라는 비난을 받자 이 시기부터 열성적인 이스라엘 로비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함.
  - AIPAC의 로비가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민선 정치인이 필요로 하는 1) 정치현금과 2) 언론의 지원을 유대인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AIPAC은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200여 명의 고정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대(對) 이스라엘 원조안은 의회 해당 상임위 또는 본회의서 토론이나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음.

**미국유대인의 자생적인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단체가 있으며  
이 로비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에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을  
유도하고 관철시킴**

네오콘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시  
두각을 나타냄. 이후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정부시절  
대(對) 아프간,  
대(對) 이라크 전쟁 등  
대(對) 테러전쟁을  
주도하면서 한때  
미국정치권력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함

#### 다. 유대인 네오콘(Neo-Conservative: 신보수주의) 권력

- 미국 네오콘의 시조는 독일 태생 유대인으로 1936년 미국에 정착한 정치 철학자 레오 슈트라우스(Leo Strauss)임. 시카고대학 교수인 슈트라우스는 극좌파에서 전향한 인물로 네오콘의 논리인 영속적 전쟁(Perpetual War)을 주장함. 즉, 민주체제를 수호키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어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 공세로 전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논리임.
- 네오콘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일시 두각을 나타냄. 이후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정부시절 대(對) 아프간, 대(對) 이라크 전쟁 등 대(對) 테러전쟁을 주도하면서 한때 미국정치권력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함. 당시 유대인 네오콘 주요인물은 리처드 펄(Richard Pearle) 국방정책자문위원장, 폴 월포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루이스 리비(Louis Libby) 부통령 비서실장,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등임.

#### 라. 언론 권력

- 금융과 언론은 미국유대인 권력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軸)임.
- 최초의 미국 유대 언론인은 1785년 시티 가제트(City Gazette)라는 주간지를 만든 모데카이 노아(Mordecai Noah)임. 미국유대인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관심을 가진 시기는 19세기 중반임. 헝가리 태생의 조세프 풀리처(Joseph Pulitzer)는 미국 유대 언론인의 시조임. 풀리처는 황색언론으로 시작해 정통 신문 사업으로 전환한 인물임. 이후 ‘풀리처상’을 설립함.
- 미국유대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표적 매체
  - 활자매체: New York Times[1896년 아돌프 옥스(Adolf Ochs)가 설립], Washington Post[1934년 유진 메이어(Eugene Meyer)가 설립], Newhouse 그룹[신문, 잡지 등/ 1922년 새뮤얼 뉴하우스(Samuel Newhouse)가 설립], Triangle 그룹[신문, 잡지/ 1936년 모시스 애넌버그(Moses Annenberg)가 설립].
  - 방송: ABC, CBS, NBC(이상 지상파), CNN[설립자인 테드 터너(Ted Turner)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1990년대 중반 CNN은 유대계 미디어

기업 Time-Warner 그룹에 흡수됨].

- 유명 언론인: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 NYT),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 NYT/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지구는 평평하다’ 저자), 칼 번스틴(Carl Bernstein, WP/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심층보도로 유명), 찰스 크라우태머(Charles Krauthamer, WP/외교평론가), 마이크 월러스(Mike Wallace, TV 토크쇼 사회자), 바바라 월터스(Barbara Walters, TV 토크쇼 사회자), 래리 킹(Larry King, CNN 토크쇼 사회자), 케이티 쿠릭(Katie Couric, CBS 전 메인 뉴스 앵커) 등.

**마. 기부 · 자선권력**

- 미국유대인 부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부와 자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심지어 악덕투기꾼으로 정평이 있는 헤지펀드의 대가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 무자비한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CEO 헨리 크래비스(Henry Kravis)도 청년실업해소와 청년 직업훈련 사업에 거금을 기부함.
- 유대인의 기부사업(Philanthropy)은 일종의 장기적 투자에 속함. 즉 미국과 같이 ‘돈’이 중요한 가치기준인 나라에서는 자선이 사회적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임. 미국의 각종 기금 모금(Fundraising)행사에는 평균 40%의 유대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대인의 기부사업 (Philanthropy)은 일종의 장기적 투자에 속함. 즉 미국과 같이 ‘돈’이 중요한 가치기준인 나라에서는 자선이 사회적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임*

**4. 미국유대사회의 장래**

**가. ‘희생자’에 묶여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

- 미국인구의 2.2%인 유대인은 그들의 노력으로 경이적인 성공을 이룸. 미국의 대부호 100명 중 32명이 유대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음. 미국 CEO 중 27.5%가 유대인임. 미국 영재교육 사학인 아이비리그(Ivy League)의 총장과 교수진의 40%, 학생 수의 30%가 유대인임.
- 이러한 대 성취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대인 대부분은 아직도 그들의 정체성을 ‘희생자(Victim)’에 두고 있음. 또한 이들은 선민의식과 함

**미국의 유대교는 개신교, 가톨릭 다음가는 3위의 종교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날로 증가하는 이슬람인구에도 밀리고 있음**

계 이 희생자논리를 유대인의 정체성에 포함시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음.

- 이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 미국 내 다른 종교나 사회집단과의 교류와 융화가 원활치 못함.

#### 나. 유대인인구의 감소

-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약 두 배의 인구증가를 보임. 그러나 유대인 인구는 1945년을 기준으로 60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유대교는 개신교, 가톨릭 다음가는 3위의 종교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날로 증가하는 이슬람인구에도 밀리고 있음.
- 1960년 유대인과 이교도 간의 결혼비율이 14%였으나, 2000년대에는 60%에 육박함. 타민족과 결혼한 당사자와 그 자녀 모두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는 성향을 보임. 불과 1세기 만에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미국유대공동체 균열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음.

## 5. 결론

- 위와 같은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대권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 이는 이들의 집중적 노력으로 미국 내 사상, 교육, 문화, 예술의 기초가 이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임.
- 미국은 다민족·다문화 사회이므로 과거 유럽과 같은 조직적인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함.
- 다만 다수의 미국인들에게는 소수의 유대인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 하는데 대한 잠재적 불만은 내재해 있음. 유대인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종교 간 대화 또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교류와 화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6. 제언

- 한국과 미국유대인 간에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교류가 없음. 이는 양측 간 상호 절실한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일본, 중국과 같이 향후 미국유대인의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 시 우리의 대미관계 증진노력에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함. 유대인은 그들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아직 미국유대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우리는 미국유대인 사회와의 교류노력을 전개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의 대미관계 증진  
노력에도 유대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국유대인 사회와의  
교류노력을 전개함이  
필요할 것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부 록

## 1. 용어해설

- \* 아시케나지(Ashkenazy): 유럽(특히 동 유럽계)유대인을 지칭하며 미국유대인의 80%가 아시케나지임. 아시케나지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원래 인종인 셈족이 아닌 동유럽 여러 백인부족의 혼혈로 종교만 유대교를 선택한 유대인임. 아시케나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민족이나 혈통에 두지 않고 종교에 두고 있음.
- \* 세파라디(Sephardy): 중동과 스페인 등 지중해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을 말하며 인종적 뿌리는 셈(Semite)족임. 셈족은 아랍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세파라디는 전 세계 유대인 중 20%를 차지함.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많이 분포됨.
- \* 마라노(Marano): 1490년대 유럽 ‘종교재판’(Inquisition)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말함. 마라노는 생존을 위해 형식적으로 개종했으나 가정에서는 계속 유대교계율을 계속 지켰다고 전해짐.
- \* 고이(Goy/Gentile): 유대인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임.
- \* ‘쇼아’(Shoah): 히브리어로 ‘절멸’이라는 의미로 보통 홀로코스트를 지칭함.
- \* 포그롬(Pogrom):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동유럽(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벌어진 유대인 박해를 지칭하는 용어임.
- \* 세다카(Sedaka): 구휼(救恤)의 의미이며 보통 유대인부호의 기부행위를 말함.
- \* 바르 미츠바(Bar Mitzva): 유대인 성인식을 말하며 보통 남녀 13세에 치름. 성인식은 유대인의 정체성 판별에 중요한 의식임. 유대인은 성인식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함.
- \* 코셔(Kosher): 유대인 고유의 요리방법으로 정통파 유대인은 코셔방식으로 조리된 음식만 먹음. 아랍세계의 ‘할랄’과 유사함.
- \* 시나고그(Synagogue): 유대인교회를 말하며 목회자인 랍비(Rabi)가 예배를 집전함.

## 2. 참고도서, 자료 목록

〈미국유대인역사, 유대정치권력, 유대로비〉

- \* A History of the Jews in America(Howard M. Sachar) 1993 New York/Vintage-Random House
- \* The American Jewish Experience(Jonathan Sarna) New York 1997/Holmes & Meier
- \* The Timetables of Jewish History(Judah Gribetz) New York 1993/Simon & Schuster
- \* American Jewish Year Book(AJC: American Jewish Committee)

- \* Ces Juifs don't l'Amérique ne voulaient pas(Françoise Ouzan) Paris 1995/Editions Complexe
- \* Jewish Power(J.J. Goldberg) New York 1997/Addison-Wesley Publishing
- \* Jews in American Politics(Sandy Maisel) Lanham, MD 2001/Rowman Publishers
- \* The Lobby: The Jewish Political Power(Edward Tivnan) New York 1987/American Foreign Policy
- \*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John Mearsheimer/Stephen Walt) New York 2007/Farrar. Strauss & Giroux
- \* La crise de l'identité américaine(Denise La Corne)Paris 1997/Fayard

<문화·예술>

- \* The Empire of their Own(Neil Gabler) New York 1989/Anchor Books
- \* The Jews on Tin Pan Alley(Kenneth Taylor) New York 1983
- \* Great Jews in Performing Arts(Darryl Leyman)NY 1999/Jonathan David Publishers

<유대인의 장래>

- \* American Space: Jewish Time(Stephen Whitefield) Hamden, CT 1988/Archon Books
- \* The Vanishing American Jews(Alan Dershowitz) New York 1997/Simon & Schuster
- \* Les Juifs au tounant du 21e siècle(Doris Bensimon) Paris 1994/Albin Michel

## 저자 약력

---

### ■ 박재선

現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을 졸업 후 외무부 중동과장, 유럽심의회, 유럽국장, 주 보스턴 총영사, 주 모로코 대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2006~2009) 및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음. 1992년 프랑스공화국 레지옹 도뇌르 기사장, 1998년 세네갈공화국 공로훈장 사령장 및 2006년 모로코왕국 공로훈장 사령장을 수상함. 주요 저서로는 『제2의 가나안: 유대인의 미국』(2002)과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파워』(2010) 등이 있음.

## JPI 정책포럼 현황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2011년 9월)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흥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